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9월 3일(주일) 제1457호



사진은 지난해 사르밧 프로젝트,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을 어려운 성도, 이웃, 기관에 전달했다.

감사와 기쁨, 온 누리와 나눈다!

2023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감사의 쌀' 전달 10월 8일까지 순별, 개인별 현금 및 공동체별 대상자 선정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감사와 기쁨을 온 누리와 나눈다. 2023 사르밧 프로젝트가 9월 3일(주일)부터 시작된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어려움을 겪는 성도, 교회 밖 이웃, 기관 등에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을 전달하는 뜻깊은 행사다.

2023 사르밧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순과 개인은 10월 8일(주일)까지 쌀 20kg 한 포

대 가격(65,000원)을 기준으로 형편에 맞게 봉헌하면 된다. 순에서 현금을 입금할 때는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꼭 기록해야 한다(예: 한강마리아 2순). 개인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현금을 송금할 때 이름, 생년월일을 기록해야 한다(예: 홍길동 850128).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

이다.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나눔 대상자는 1순위 온누리공동체 소속 성도, 2순위 외부 기관, 3순위 외부 개인 순으로 선정하면 된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 접수는 10월 8일(주일)까지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 확인을 거친 다음 반드시 공동체 이름으로, 공동체를 통해, 이메일로만 접수해야 한다(서빙고: 23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 나머지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농어촌교회 성도들이 수확한 쌀을 10월 30일부터 공동체에서 추천받은 대상자들에게 현지에서 택배로 배송한다. 서빙고와 양재를 제외한 다른 캠퍼스에서는 상황에 맞춰 대상자에게 전달해도 된다.

온누리교회는 2020년부터 추수감사절에 사르밧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사르밧 프로젝트에 2억 5백만 원을 현금했고, 성도와 이웃 등 1,256곳에 감사의 쌀을 전달했다.

문의: 02-3215-34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대전온누리교회 창립 20주년

9월 3일 오전 11시 30분 감사예배

대전온누리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했다. 9월 3일(주일) 오전 11시 30분 대전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창립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특순과 케이크 커팅식, 비전 선포식 등이 이어진다.

대전온누리교회는 2003년 9월 7일 '살아있는 예배, 아웃리치, 행복한 가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국내 3번째 캠퍼스로 창립했다. 2020년에는 세종시 복음화와 차세대 및 젊은 부부 부흥을 위해 세종교육관을 설립했다.

김상수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임)는 "지난 20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많은 목사님, 성도님들의 헌신에 감사하다"면서 "대전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파 이오니아'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2023 전도엑스포 개최

9월 3일 서빙고 이천만광장, 양재 사랑홀 앞 광장

'2023 전도엑스포'가 막 오른다. 전도엑스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더 큰 관심과 사명을 갖게 하려고 마련한 자리다. 9월 3일(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앞 광장에서 진행된다. 전도 부스를 설치하고, 전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전도 관련 상담 등도 한다.

전도 관련 세미나도 열린다. 서빙고온누리교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장경문 장로 '날마다 111전도', 오전 9시 2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최성민 목사 'MZ세대 이해와 전도 전략',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0분까지 이남식 장로 '시대적 변화와 세계선교', 오후 12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안상헌 장로 '군생활과 청년전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양재온누리교회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 10분까지 이영재 목사 'FCA 스포츠를 통한 전도', 오전 9시 2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임영광 목사 'CGN을 통한 전도', 오전 10시 10분부터 오전 10시 50분까지 장경문 장로 '날마다 111전도', 오전 11시부터 오전 11시 40분까지 이용석 전 MBC 총북사장 '전도의 즐거움'을 주제로 강의한다.

문의: 02-3215-3377

/ 홍하영 기자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하반기 개강

9월 12일부터 매주 화 오후 8시 Zoom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하반기 개강을 한다. 9월 12일(화)부터 12월 5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커뮤니티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김성목 장로가 '통(通)하는 부부, 통(痛)하는 부부'를 주제로 강의한다. 10월 23일에는 JCC아트센터에서 온라인커뮤니티 맞춤형도전회가 열린다. 최정주 권사(아트엔뮤직 큐레이터)가 강의한다. 11월에는 보이는 라디오 '슬기로운 말씀 생활'을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2-3215-3214

/ 홍하영 기자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

창세기 9:18~29

하나님이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후손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신 까닭은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을 노아에게 되풀이해 주심으로써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창조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끔찍한 홍수 심판이 세상에 임했지만, 인간 안에 있는 죄악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이 생존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 심판의 계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죄가 살아있었습니다. 심판으로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심판과 형벌이 죄를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경각심을 줘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있지만, 아담 안에서 물려받은 죄악의 뿌리, 원죄, 죄악의 본성은 무서운 심판이 임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 인간의 모습을 보면 지옥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심판과 형벌의 무서움이 죄 자체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 목적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심판으로도 벗겨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창세기> 9장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바벨탑과 홍수 심판 사이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시대 역사를 보여주었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구원받았던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음으로 자녀들에게 수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서 심판으로도 벗어지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 줍니다.

세 자녀에 대한 노아의 예언

성경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성품을 오랜 시간 보였던 사람일지라도 그들 속에 숨어 있던 죄를 낱알이 드러냅니다. 성경이 일반 역사가나 사람들이 기록한 거라면 이 정도 사건은 그냥 넘어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

아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에게도 죄가 다시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밭에 잡초를 다 뜯어 놓아도 어느 순간 다시 자라듯이, 심판 이후 노아의 마음에 어느덧 죄악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수치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사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들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이 그 광경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22절을 보면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았다’는 것은 단순히 발견하고 알렸다는 뜻이 아니라 속으로 즐기면서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말했다’는 단어에도 ‘매우 즐거하면서 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의 모습에서 타락한 뱀 후손의 성품이 발견됩니다.

반면 노아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셈과 야벳에게는 노아의 그 모습이 결코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겹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자신의 수치로 여기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노아가 술에서 깨어나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이후 자녀들에게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세 자녀에 대한 노아의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은 역사 속에 실제로 성취됩니다. 신약의 역사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노아의 가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 같은 한 사건이 어떻게 역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가 싶습니다. 또 함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 출발점에서의 사소한 차이나 방향의 전환이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철도를 보면 철로가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갈리는 지점에서는 두 철로가 바로 옆에 있지만, 가면 갈수록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군대에서 포탄을 쏠 때 각도가 조금만 오르거나 내려가도 탄착지점에서는 완전히 다른 곳에 떨어지는 것처럼,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차이가 세월이 흐를수록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사건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를 일으키는 선택인지 아니면 축복을 상속받는 선택인

지를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에게 일어난 사건이 그들을 통해 번성하는 수많은 자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큼니다. 자손들에게 축복을 상속해줄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상속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행동과 사건이 한 가정의 미래, 더 나아가 역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큰 가족의 조상일수록 작은 가족의 조상보다 큰 책임을 집니다. 고대 조상일수록 책임이 작다고 보는데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더 큰 가족의 조상일수록 더 많은 자손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과 불순종이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 무게가 더 큰 것입니다. 노아와 그 후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의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노아의 예언, 영적인 계보의 역사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25~27절).

노아의 예언은 영적인 계보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셈, 함, 야벳이 어떤 혈색이나 혈통으로 민족의 우월성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셈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아들이 축복과 저주를 받는데, 모두 셈을 중심으로 받습니다.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셈의 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켜 주시는데,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셈을 중심으로 한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셈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선행을 했기 때문이겠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과 셈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역사도 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나오고, 유다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의 후손으로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의 영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넓게 펼쳐 주실 때마다
열방을 축복하고, 섬기고, 나누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보내실 지를 아주 오랜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을 역사 속에 예언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셈을 축복하며 찬송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셈에게 열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셈에게 임해서 그의 계승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셈의 모든 자손은 아닙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서 셈에게 초점을 맞춘 것처럼, 셈의 후손 중에서도 아브라함,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도 이삭,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도 야곱,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도 유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축복을 상속받고 나누는 영적인 계보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서는 셈, 셈의 후손 중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대,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하나님 선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 그대로...

함의 후손에게는 저주가 주어집니다. 25절을 보면 함이 아버지를 조롱했는데, 왜 함의 막내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종교개혁자 장 칼뱅이 해석한 것입니다. 함이 받은 형벌의 가혹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대표되는 후손을 저주한 것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극심하게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후손들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번영하느냐 혹은 가난한가가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이 셈이나 야벳보다 좋은 땅을 차지한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축복은 이 땅에서의 번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가나안이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되어 형제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 특히 기드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거짓으로 화친을 맺고 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예언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주받은 운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의 행동에 나타난 죄의 씨앗이 시간이 흐를수록 어

떻게 확장되는지를 하나님이 아벳기에 노아를 통해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야벳도 셈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27절).

야벳은 셈과 함께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선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야벳에 대한 축복도 셈의 장막 안에서의 축복입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셈의 장막에 열리고, 셈의 장막이 창대하게 되어서 야벳도 그 장막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 <사도행전>의 사역을 통해 셈의 장막이 열려서 수많은 야벳이 그 장막으로 들어오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셈의 후예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은 모두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셈의 장막이 확장되어서 수많은 야벳이 그 장막 안에 축복의 상속자로 함께 참여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노아가 왜 셈을 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셈에게 초점을 두신 것은 셈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나만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고백은 셈만을 위한 하나님이 라는 뜻이 아니라 셈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셔서 그의 장막이 넓게

퍼짐으로 수많은 사람이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축복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까지도 셈의 장막에서 다스림을 받고, 축복의 장막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내버려 두면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나안을 셈의 장막에 종으로 붙잡아 두심으로써 그 축복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가 상징하는 것은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장막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열방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초청하는 약속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남들보다 나은 성품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것을 보면 비열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위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셈의 후손 중에 영적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가 선지자도 셈의 장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장막 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 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네가 좌우로 터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네 자손이 못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읍들에 살게 될 것이다”(사 54:2~3).

셈족의 위대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셈의 장막이 넓어짐으로써 종의 신분인 가나안이든, 창대하게 된 야벳이든 모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종적인 구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 더 뛰어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하셔서 그 민족만 축복하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장막을 넓게 하심으로 더 많은, 모든 민족이 축복으로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나만의 축복은 없습니다. 하

나님이 장막을 넓게 하실 때마다 더 많은 영혼이 축복을 함께 상속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도 노아를 통해 셈의 장막을 넓게 하시고, 셈을 축복하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상속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 역사의 흐름을 이처럼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는 역사가가 세상에 있습니까? 온 세상의 역사를 이처럼 간결하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며, 심판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대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축복을 상속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될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이든 야벳이든 먼저 택함을 받은 자의 영적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을 넓게 펼쳐 주실 때마다 열방을 축복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셈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
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만의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의 장
막을 넓혀주실 때마다

열방을 축복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세
상 속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
시고 약속하심으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
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축복을 축복대로
온전히 받아 누리며,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본 ‘묻지마 범죄’

‘묻지마 범죄’라고도 하는 ‘이상 동기 범죄’는 구체적인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이다. 최근 몇 주 동안만 해도 서울 신림역 주변, 분당 서현역, 대전의 모 고등학교, 미수에 거친 동대구역 등 전국에서 뚜렷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에 누구든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서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더욱이 인터넷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살인 예고’가 다수 발견되어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다. 이런 범죄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폭력이나 칼부림 형태로 일어나지만,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혹은 폭발물 등의 사용으로 한꺼번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80년대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 발생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2022년 1월 ‘이상 동기 범죄 전담 회의체’를 구성했지만 ‘이상 동기 범죄’의 명확한 정의조차 없어서 발생에 대한 통계나 원인분석 정보도 없이 별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창조-타락-구속-완성의 큰 이야기(메타내러티브; Metanarrative)를 들려주고 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인간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에덴에서 추방되는 타락이 있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악 속에 살게 된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사함과 새 생명을 얻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그리스도를 향해 완성되어 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큰 이야기 속에 성경적 세계관이 녹아 들어 있다.

“하루빨리 공교육에서 잘못된 이념을 제거하고,
건전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고, 삶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것이 범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여러 나라에서 묻지마 범죄 원인 요소를 분석한 것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이를 성경적 세계관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한 기술 발전과 소통의 단절이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을 이상화한 결과이다. 기술은 가치중립적이지만 거기에 담긴 문화를 경배하는 것은 스스로 만든 나무 우상에 절하는 행동이다.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거기에 예배하는 것이 원인 일 것이다. 둘째, 양극화와 부정부패가 심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측면이 공존할 수 있다. 재물을 맡은 부자들이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 권력을 잡은 정치가들이 공의의 실현에 실패한 측면, 사회정의의 부르짖는 마르크스주의자에 세뇌되어 피해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타타는 측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회의 파편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와 전통적 기준 상실이다. 해체주의적 접근은 새 기준이 형성되기 전에 전통적인 기준을 일소함으로써 윤리적 무정부 상태를 유발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범죄자의 자기중심적 해석이 스스로 분노를 폭발하게 했을 것이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 대한 분열을 정치적 올바름(PC)으로 정당화했을 수도 있다.

기독교 세계관은 이 진단에 대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까? 첫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의한 기술 발전과 소통의 단절이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무엇보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문화에 빠져 거기에 대한 경배를 멈추는 게 중요하다. 우리를 먼저 점검하고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진정 경배할 대상을 소개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관계 형성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먼저 그들을 격리된 방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 둘째, 양극화와 부정부패가 심화하는 사회에 대한 분노이다. 가진 자들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의 빈손을 채울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권력을 가진 자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의롭게 행해야 한다. 가난의 원인을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돌려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 파편화로 인한 공동체 해체와 전통적 기준 상실이다. 반기독교적인 해체주의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전통 윤리를 공격했다. 학생인권조례에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사와 부모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중심의 인권을 부르짖는다.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성, 생명, 결혼, 가정의 기준과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 성 혁명의 물결이 10년 이상 공교육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문화혁명의 결과가 20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루빨리 공교육에서 잘못된 이념을 제거하고, 건전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이시고, 삶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 - 남자와 여자

‘다양한 가족’에 숨은 거짓

도재현 안수집사
(강남D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2023년 어버이날 한 청소년 인권단체가 신문은 평을 통해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하고, 어린이 청소년에게 이러한 정상성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진보적 기독교 언론매체에서는 교회를 지배하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는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성경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야 한다”는 자유주의 목사의 글을 게재했다. 대한민국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기사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가브리엘 쿠퍼는 <글로벌 성혁명>에서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사실과 언어를 일치시켜 언어라는 그릇에 진실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고의적으로 언어를 이용하여 사실을 다르게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유형이 있는 데, 후자의 언어는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예를 들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처럼 불순한 의도로 언어를 조작하여,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전통적 가치를 축소하고 부정하게 선동한다. 반대로 ‘다양성’과 같이 긍정적 단어에, ‘성적지향’,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내포시켜 남용하게 만든다. 이는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장바구니에 담듯, 개인의 성적지향대로 ‘다양한 가족’을 구성하고, 이것을 현대성의 반영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쿠퍼는 이것을 언어에 대한 정치적 유린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조작된 언어로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있다. 자녀들은 학생인권조례뿐 아니라 교과서와 각종 방송 매체들을 통해 동성 부부, 동거, 정자구매, 대리모, 비혼주의, 비혼출산, 미성년자들의 성관계와 출산 등을 받아 들여할 ‘다양한 가족’으로 배운다. 이런 교육을 양심적으로 거부하면 소위 차별주의자, 혐오주의자, 수구주의자로 낙인이 찍힐까 봐 자신의 가치관 대로 말하기 힘든 상황이다. 성혁명 주자들은 성별 고정관념을 없애고 사회적 성(젠더)을 보편화 하려고 수년 동안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젠더주의를 확산시켜 왔고, 차별금지법을 시작으로 생활동반자법, 모자보건법과 같이 다양한 가족의 법제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교회로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인권만능을 하나님의 사랑과 포용이라고 외쳐대고 있다.

존 스토틀 목사는 “결혼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창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로서 한 남자 한 여자 사이의 배타적인 이성간 연약이며,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치신 것이며, 성적 연합에서 완성되며, 영속적으로 서로 지지하는 협력 관계를 낳고, 보통 자녀를 선물로 받는다”고 정의했다. 하나님의 설계에 가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1남 1녀의 결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처럼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여 하나님께 도전하고, 가정을 해체하려는 속임수에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성경의 절대 권위 앞에 굴복해야 한다. 세계적 기독교 변증가 오스기니스는 성경의 권위를 희석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목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하였다. 시대에 따라 성경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자들의 궤변에 자녀들이 미혹되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온전한 복음을 힘써 가르쳐야 한다.

둘째, 학교 교육과 문화 미디어를 통해 성혁명과 가정해체의 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교육해야 한다. 세상은 성정체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자녀들을 교육으로 집중 공세한다.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적 결혼, 가정의 의미를 적극 가르치고, 결혼한 부부들은 아름다운 성경적 가정의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깨어진 가정의 자녀들은 왜곡된 가정관에 쉽게 동화되고, 청소년 인권단체처럼 쉽게 정치 도구화 된다.

셋째, 학생인권조례나 교과서 문제, 차별금지법 같이 하나님의 질서에 대적하는 교육과 법제화를 반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통해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 나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거룩한 예수 제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가정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한다.

자녀의 마음으로 풍당! - 학습과 성적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



최은영 교수
(햇불트리니티 신학대
학원대학교)

많은 크리스천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를 키우기 원한다. 그러나 만만치 않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자녀와 소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학습과 성적’이다. 크리스천 부모로서 자녀들의 공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지도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

먼저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인지적 전략**’이다. 우리는 공부를 잘하려면 지능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평균 IQ가 100이다. 표준편차가 10인 것을 고려하면 IQ 90~110까지가 평균 지능이다. 다시 말하면 IQ 90~110 정도의 평균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라면 반에서 1~2등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학습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전략’이다. 공부에 집중하는 전략,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전략, 시험 불안을 줄이는 전략 등 인지적 전략을 아이들이 아는 게 필요하다. 인지적 전략과 관련된 책과 강의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둘째, ‘**마음**’이 더 중요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힘은 자녀 스스로 ‘공부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의미다. 우리 모두 하기 싫은 것을 힘써서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큼 힘든 일이 또 없다.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에게 힘든 공부를 참아낼 분명한 동기가 필요하다. 스스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아이들은 부모가 뜰어말려도 공부한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다. 청소년들의 마음 상태를 알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마음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프다. 아이들이 겪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은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등이다. 우울한 상태에서는 결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유부단해진다. 그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보자. 결단



력이 흐려지고, 우유부단한 아이가 시험을 볼 때 네 가지 선택 지문 중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을까? 쉽지 않다. 우울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공부도 어렵고, 시험도 어렵다. 자녀의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걱정된다면 자녀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셋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관계가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다.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예뻐까?’라고 생각해보자. 공부를 못하는 자녀보다 잘하는 자녀가 더 예쁘다면 그 부모에게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부모의 인생 목표가 ‘공부’인 것이다.

부모의 인생 목표를 강요받는 자녀가 많다. 부모 마음에 ‘성적이 자녀의 미래 생활 수준을 좌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 잘해서 밥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저물어 간다. 미래는 공부 외에도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 소통 능력 등이 인정받는 시대다. 부모는 자신의 잘못된 마음을 돌아보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녀가 관계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 크리스천 부모라면 생각해야 할 게 있다. ‘신앙생활과 공부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지’ 고민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아이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아이들이 공부를 묵묵히 할 수 있다. 나는 고등부 새친구반 교사를 하고 있다. 하

루는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한 학생이 새신자로 왔다.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생각하다가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소개했다.

“예수님은 내가 차에 치여 죽으려고 하는데 너를 밀어내고 대신 차에 치여 죽은 연인과 같은 분이야.”

이 설명을 들은 그 친구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었다. 그 친구에게 다시 질문을 던졌다. “너 대신 죽으면서까지 네 목숨을 살려주신 분을 위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니?”

그 친구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 무엇을 원했는지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셨던 것을 위해 살아야겠어요”라고 대답했다. 주일예배가 끝나고 그 친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으니 이제 열심히 공부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아이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진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공부하게 되어 있다.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부모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할 때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로 자랄 것이다.

* 이 글은 기독교 OTT ‘풍당’ 프로그램 [청소년 감정 코칭] 자녀 마음을 읽어주세요 1편 학습·성적’을 요약 및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강의는 기독교 OTT ‘풍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그림 명난희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9월 1~3일 본문 <히브리서> 1~2장



1.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많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이예요.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높이던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분이예요. 이분은 누구일까요?(히 1:1~5)

2.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히 2:10~18).

- 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 ② 악한 마귀의 권세를 없애셨다
- ③ 모든 사람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
- ④ 예배드릴 튼튼한 교회를 지어주셨다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차세대 QT 간증

“말씀이 더욱 재미있어졌어요”

저는 서빙고온누리교회 유년1부 권영은이에요. 저는 QT를 밤 9시쯤 해요. 혼자 QT를 한 다음 가족들과 나눔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자기 전에 QT하면 하나님이 밤새 지켜주실 것 같아서 밤에 QT해요. 유치원 때부터 <예수님이랑 나랑>으로 QT했어요.

QT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7절~8장 1절이에요. QT 제목은 ‘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켜요’였어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한 내용이에요. 저도 스테반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QT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QT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고, 말씀을 더 알게 되어서 좋아요. QT하면서 말씀이 더욱 재미있어졌어

요. 앞으로 제 계획은 오빠처럼 학교 가기 전에 QT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도 말씀을 더 잘 알게 되고, 재미있는 QT를 꼭 하라고 알려줄 거예요.



권영은 학생
(서빙고 유년1부)

그 예배에 가면... 1. 그들의 전도이야기 2. 다시 새롭게, 언제나 뜨겁게

“열린새신자예배 덕분에...”

유일권, 성주영 성도가 가족 전도한 사연

이 시대를 ‘전도의 빙하기’라고 한다.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그 마음을 녹이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란다. 전도 방법을 모르기도 하고, 전도할 용기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이란다.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다(딤후 4:2).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과 예배가 귀하다. 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는 전도에 특화된 공동체다.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전도대상자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초대하기 때문이다. 그 열심 덕분에 유일권 성도가 여동생을, 성주영 성도가 어머니를 전도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열린새신자예배 덕분에 여동생 유수안 성도를 전도한 유일권 성도(왼쪽), 엄마 김정남 성도를 전도한 딸 성주영 성도(오른쪽).

하고, 기다리는 예배가 또 있을까 싶었다. ‘이런 예배라면 가족을 데려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을 열린새신자예배에 데리고 올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 몇 개월 뒤, 서빙고온누리교회 근처에서 여동생과 어머니를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다. 별 기대 없이 “저녁 7시에 드리는 정말 좋은 예배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라고 물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흔쾌히 수락했다. 바로 그 날이 유일권 성도의 여동생 유수안 성도(성동광진공동체)가 교회에 첫발을 디딘 날이다.

당신을 하나님께 초대하는 바로 그 예배

유수안 성도는 지금도 처음 교회에 온 날을 잊을 수가 없다. 예배드리는 내내 이유를 알지 못하는 눈물이 쏟아졌다. 무슨 말인지도 통 알아들을 수 없는 설교를 듣는데 벽찬 감격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런데 선뜻 교회에 다녀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눈물 흘리는 모습을 누가 볼까 부끄러웠다. 그 날의 이상한(?) 경험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같았다.

교회와 예배에 대한 기억을 잊을만하면 오빠 유일권 성도에게 연락이 왔다. 어느 날은 좋은 찬양을 보내주고, 또 어느 날은 설교 영상을 보내줬다. 처음에는 별생각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힘든 일이 있으면 오빠가 보내준 영상을 하나씩 꺼내 봤다. 아주 조금씩 마음이 열릴 무렵 유일권 성도가 ‘별복음반’(열린새신자예배에서 운영하는 새신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및 교회 정착을 돕는 프로그램) 참여를 권유했다.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이 누구기에 오빠가 이렇게까지 권유하는지 알고 싶어서 참여했다.

유수안 성도는 별복음반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 주위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도 놀랐다. 별복음반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한 영혼을 향한 열린새신자예배의 뜨거운 사랑도 만끽했다. 새신자 눈높이에 맞춘 말씀 강해와 찬양 인도, 새신자 다섯 사람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스무 명 남짓 스태프들, 쉬지 않고 들려오는 중보기도 소리까지 어느 것 하나 감동적이지 않은 게 없었다.

유수안 성도는 별복음반을 수료하고, 올해 초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세례를 받았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 얼마 전부터는 일대일제자양육도 시작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일상을 살고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제 마음에 평안이 가득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남편도 저의 변화를 느낄 정도입니다. 이 좋은 하나님을 소개해준 오빠와 열린새신자예배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들, 딸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가 그랬던 것처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열린새신자예배가 떠올랐다!

성주영 성도(동작공동체)도 열린새신자예배 덕분에 엄마를 전도했다. 성주영 성도는 20대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 친가와 외가 중에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한 명도 없었다. 친구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대학교 후배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기도해주는 부모님을 둔 친구들, 온 가족이 함께 신앙 생활하는 가정이 몹시 부러웠다. 그런데 가족들을 전도할 용기가 없었다.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자신뿐이라는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그렇게 20여 년이 흘렀다.

늘어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마음이 조금해

졌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상황을 열어주셨다. 마흔 넘어 출산한 딸을 위해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시기로 했다. 엄마가 서울에 올라와 생활하면서 딸과 사위가 매주 주일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는 것을 보게 됐다. 자연스럽게 교회에 마음을 여는 것 같았다.

성주영 성도가 용기 내 엄마에게 “교회에 한번 가볼래?”라고 말했다. 하지만 칠십 평생 교회에 한 번 가보지 않은 엄마에게 예배가 너무 무겁고 어려울 것 같았다. 바로 그때 몇 년 전 드렸던 열린새신자예배가 떠올랐다. 열린새신자예배라면 엄마의 전도를 도와줄 것 같았다. 열린새신자예배를 믿고 엄마를 교회에 초대했다. 그때부터 일사천리였다. 성주영 성도의 어머니 김정남 성도(열린새신자예배)가 지난해 9월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김정남 성도는 열린새신자예배에서 경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친절한 스태프들, 극진한 섬김, 은혜로운 설교 모든 게 꿈만 같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정말 아쉬웠다.

“제가 이 나이에 어디서 대접을 받았어요? 따듯하고 친절한 열린새신자예배 스태프들의 섬김에 늘 감동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새신자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는 조준목 목사님의 설교도 정말 은혜입니다. 열린새신자예배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김정남 성도는 요즘 성경일독에 도전하고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네 장씩 읽고 있다. 성주영 성도가 열린새신자예배에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제 마음에 품고 있던 가족 구원이라는 소원을 열린새신자예배 덕분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행여주시고, 전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신 열린새신자예배 모든 스태프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열린새신자예배에서 배운 대로 엄마의 전도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약 1:2)

많은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힘들어 한다.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내면세계에 말하지 못할 시험 거리가 생기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만날 때 기쁘게 인내하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 로마제국에 일어난 박해로 기독교 공동체가 큰 환란과 위기에 처해있었다. 정신적인 고난뿐 아니라 목숨과 재산을 잃을 수도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이 시험 앞에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소개한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고난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이 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물리적인 박해나 사회구조로 인해 고난이 일어날 수 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한 고난이

나 하나님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로 고난이 올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불신자들에게나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행복하고, 잘 살게 된다는데 만일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삶에 여전히 고난이 많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한다(약 1:3-4). 그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나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다(약 5:11).

예수를 믿음에도 고난이 찾아오는 까닭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다. 종종 우리는 고난만 없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단련해 주시는

성도의 인내는 반드시 풀무불에서 은금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죄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죄의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는 연단이라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믿음을 순결하게 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에는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이후 고난은 이전과 차원이 다르다. 예수 믿기 전에는 혼자 고난을 감당해야 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울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광야 생활했던 다윗도 그러했다.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해야 했던 요셉의 삶도 그러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이유 없이 고난의 길을 인내해야 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왔을 때 끝까지 인내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라(롬 5:3~4)”고 말하고 있다.

바울도 이신칭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한다. 고난이 인격 속에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으며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내는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하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길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한다. 고난 중에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롬 5:5).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초보 신앙에서 완전한 신앙으로

9월 4일~10일
〈히브리서〉 3:1~6:20



사 삼고, 불순종과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 참된 안식에 이르기 위해 성도가 따라야 할 모습과 버려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성도는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忠信)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신실하셨기에 더욱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잡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광야에서 거역했던 이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 불신앙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조심하고,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늘 서로 권면해야 한다.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처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성도는 마지막 날 예수님과 함께 영원

묵상포인트 1:

예수님은 만물보다 뛰어나신 창조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반면교사 삼고, 불순종과 완고함을 버려야 한다. 참된 안식에 이르기 위해 성도가 따라야 할 모습과 버려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묵상하자.

묵상포인트 2: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제일)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성장이 멈춘 신앙은 곧 퇴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배교하도록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는 이유를 묵상하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예리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숨기지 못하고 드러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신 예수님은 모든 이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초보에서 성장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하고, 소망과 믿음과 인내로써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야 한다.

묵상포인트 3:

‘빛’은 배를 고정해 거센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한다. 세상 유혹과 고난의 풍파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들어 주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빛’ 같은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안전하고 확실한지 묵상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분 이름으로 맹세해 약속을 보증하셨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다. 소망의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신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우리를 표류하지 않도록 붙드는 영혼의 닻과 같다. 이 소망을 소유한 우리는 지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 그곳에 앞서 들어가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 묵상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죽기까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완고한 마음으로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다시 순종을 결단하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시다.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자.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내 귀에 듣기 좋고 마음에 드는 말씀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내 마음에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에도 겸손히 순종하자. 날마다 경건 훈련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의 경주를 이어가자. ▶내 안에 ‘영혼의 닻’ 같이 튼튼하고 견고한 구원의 소망이 있는지 돌아보자. 주변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진로를 위해서!

저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주시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비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신학과를 가려고 준비하다가 저의 부족함을 느끼고 다른 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진로를 바꾸고 신앙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목회자의 꿈을 주셨습니다. 포기했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비전을 주셨습니다.

현재 졸업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할 게 많습니다. 졸업 논문도 준비하고, 신학 대학원 시험도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해야 하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과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기도해주시요.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의 욕심을 버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해주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가도록 기도해주시요.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다시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주시요.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daa2@onnuri.org

크리스천의 정신건강_분노

성경에서 배우는 ‘분노통제법’



이정환 목사
(도곡공동체, 책 <내
마음이 아픕니다>, <신
앙의 사계절> 저자)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 가서 눈 흘긴다”라는 말이 있다. 엉뚱한 곳에서 화풀이한다는 뜻이다. 직장에서 큰 문제가 있던 날 집에서 영문도 모르는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화는 못 내고 기분 좋게 데이트하러 나온 연인에게 짜증을 내는 일 등이다.

엽기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온다. 아무 이유 없이 길 한복판에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 어린 딸을 감금하는 엄마, 옆집에서 들리는 키보드 소리가 시끄럽다고 불을 지른 사람 등 기가 차고 가끔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지 의심하게 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진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내려다 보니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분노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별일 아닌데도 얼굴을 붉히고, 종종 극단적인 사건으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지금 ‘분노 사회’를 살고 있다.

분노는 원초적 감정

분노는 불합리하거나 불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원초적인 감정이다. 분노를 잘 표현하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화를 삭이면 마음에 병이 된다. 분노 자체는 건강한 감정이지만, 작은 자극에 크게 분노하면 문제가 된다.

<창세기> 4장 2~1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온다.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분노했다.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을 죽여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

마음에 분노가 쌓으면 미움으로 변한다. 성경에서는 분노에 대해 여러 번 경고한다(갈 5:20~21, 마 5:22, 약 1:20). 분노를 표출하면 잠시는 속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민 20:11~12).

평소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행동이 도를 지나치자 인내가 한계에 달했다. 순식간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감정에 치우쳐 화를 냈



1. 잘 듣고, 천천히 화내기(약 1:19~20).

2. 기도하기(잠 15:1, 엡 4:31).

3. 인내하기(잠 12:16).

4. 예수님 기억하기

다. 분을 내서는 안 되는 일에 분을 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결국, 모세는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 이처럼 분노를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사탄이 준 마음과 결합하면 큰 화를 낳는다.

분노와 관련된 인격장애

분노와 관련된 인격장애 몇 가지를 성경 속 인물을 예로 들어 소개한다. 첫째,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 했다. 바쁜 남편 때문에 우울하던 차에 용모가 수려하고 성품이 좋은 요셉이 하인으로 들어왔으니 마음을 빼앗길 만도 하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일방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쏟아내지만, 요셉은 계속 동침을 거절한다.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애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다. 거절에 화가 치밀어올라 요셉이 자신을 덮치려 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그녀는 매우 자기도취적인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워서라도 스스로 합리화하려 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있는 환자들은 연기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를 ‘연극성 인격장애’라고도 한다. 연극성 인격장애는 공상, 칭찬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나타난다.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를 내고, 교묘하게 상황을 조작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한다.

둘째, ‘경계성 인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다. 경계성 인격장애는 생각, 행동 및 대인관계의 불안정과 주체성의 혼란으로 모든 면에서 변동이 심한 이상 성격을 말한다. 정상과 우울, 분노를 자주 오가기 때문에 충동적인 편이다.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한다. 불안정함과 공허함을 느낄 때 이유도 없이 남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성향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계성 인격장애를 보였다. 그들은 모세와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다. 돌아서는 건 순식간이었다. 광야에서 심신이 힘들어지자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였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렬히 맞이했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고 다닐 때는 옆에서 조롱하고 욕했다. 경계성 인격장애 환자들은 늘 오락가락한다. 방금까지 웃고 떠들다가도 불현듯 욕을 퍼붓기도 한다. 1분 후를 예측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셋째, ‘반사회성 인격장애(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는 ‘사이코패스(Psychopath)’로 더 익숙하다. 이들은 도덕적 판단을 할 수는 있으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을 속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지나친 야망과 우월한 태도를 보이며 타인의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 연쇄살인범, 토막살인범 등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는 사람들이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해당한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제들도 사이코패스였다. 질투심에 휩싸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동생을 팔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척 동생의 사고를 조작했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는 기본 규칙

극단적인 분노 표출은 화를 낳지만, 사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감정이다. 분노는 불합리한 상황이나 불의한 상황에서 잘 표현해야 한다. 분노를 건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기본 규칙이 있다. 특정한 사람을 겨냥하지 않을 것, 개인적 앙심을 품지 말 것, 충동적인 분노

는 자제할 것 등이다.

화를 내기 전에 이게 정말 불의한 일인지, 혹시라도 단순히 내 기분이 상한 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 분노에 감정을 실으면 일이 커진다. 미움, 노여움, 분함, 억울함 등의 감정이 분노와 결합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사탄은 우리가 분노할 때 어떻게든 사태를 악화시키려 한다.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 때문에 분노를 폭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분노는 불의에 반응할 때 필요하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거짓된 세상을 향해 분노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하나님도 분노하셨다.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분노에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원칙이 있다. 악한 일에 거룩한 분노를 하는 게 중요하다. 우주선을 실은 로켓이 내부 폭발의 힘으로 발사되는 것처럼, 인간은 거룩한 분노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침묵이 가장 비겁하다”는 말이 있다. 시대의 부정에 대해 침묵하는 대신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엘마 케이츠라는 의학박사는 인간의 숨을 액체공기로 냉각시키면 약간의 침전물이 생기는 것을 발견했다. 실험 대상자가 땀이 화가 났을 때는 갈색, 고통과 비애를 느낄 때는 회색, 잘못을 후회할 때는 분홍색이었다고 한다. 갈색 침전물을 녹여 실험 쥐에게 주사했는데 몇 분 뒤 죽고 말았다. 분노가 독을 품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증명했다. 적당한 분노는 정신 건강에 이롭지만,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본인이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첫째, 잘 듣고, 천천히 화내기다(약 1:19~20). 우리는 성급히 말하고 서둘러 화를 낸다. 하지만 많이 듣고 적게 말해야 분노를 다스리기 수월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둘째, 기도하기다(잠 15:1, 엡 4:31). 분노에 휩싸였을 때 바로 기도하자. 기도가 분노를 통제할 수 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내 안의 분노가 사그라들 것이다.

셋째, 인내하기다(잠 12:16). 서울백병원 우종민 박사가 쓴 ‘분노를 다스리는 15의 법칙’이라는 글을 보면, 분노 호르몬은 15초면 정점을 찍고 체내에서 분해된다. 15분이 지나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이다. 치미는 분노를 잠시 참아내면 금방 가리운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아내지 못하면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분노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다.

멘토가 멘티에게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늘 걱정이 되고,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수 1:9).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실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익숙하게 통제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두려움은 필요한 감정이다. 선에 대해서도, 악에 대해서도 그렇다.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고 멀리하는 게 중요하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질투한다. 두려움도 마찬가지다. 두려움 없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하고, 훈육의 길로 인도할까? 두려

움을 대면해서 받아들이고, 그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 두려움을 제어하면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용기가 발현돼 성과에 도움을 준다.

나는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자전거로 국토종주를 한 적이 있다. 한 구간이 공사로 폐쇄돼 어느 마을로 들어갔다. 그때 갑자기 내 뒤를 따라오는 큰 개 한 마리를 만났다.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고 좋아하는데도 무섭게 쫓으며 내 뒤를 따라오는 개를 보니 심장이 두근대고 겁이 났다. 그 개를 피해서 초인 같은 속도로 그 마을을 벗어났던 적이 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은 직장, 주거, 동반자를 정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청년의 때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생의 비상을 원하지만, 날아오르고 나면 더 높이 날아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두려움에는 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를 키워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 것이다.

악한 영이 미혹하는 두려움은 경계하고 이겨내야 한다. 궁극의 두려움은 죽음이다. 우리는 부활 소망의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두려움에 맞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훈련이다. 순종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는 체험이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바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다.

‘내 평생 가는 길 평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찬송 가사처럼 평안하고, 담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선포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찬양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한다. 쉽지 않아도 이런 훈련을 끊임 없이 해야 한다.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라고 고백하며 용기를

내야 한다.

인생의 경로를 오롯이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용기 있게 전진하고, 닫으시면 절제하며 멈춰 서면 된다. 사탄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우리를 유혹한다. 정말 그것만 가지면 될 것 같다. 하지만 욕심의 애착과 집착을 없애야 용기를 얻는다. 욕심을 버리면 얻는다.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며 힘을 얻는다. 환경을 보고 이성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광야에 길을, 사막에 샘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 모든 청년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한다. 많은 청년이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두려움을 뒤로한 채 전진하기를 바란다.



이원장 멘토
(여호수아청년부 멘토)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유지(Keep)’ 할 것과 ‘멈춰(Stop)’ 야 할 것!

관계가 좋은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사랑과 친밀감을 누린다. 가족들이 휴가 일정을 조율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의견을 나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가족이 함께 여행하면서 관계의 확장을 기대한다. 여행을 통해 가족이 가까워지고, 추억을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몸이 힘들고, 일정이 틀어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는 경험을 할 때도 있다.

많은 가족이 여행하면서 즐거웠다고 고백한다. 하지만 어떤 가족들은 힘든 일이 많았다고 회상한다. 그 힘든 일의 종류가 다양하다. 소매치기, 여행 가방 분실, 바가지요금 등 여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불쾌한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불쾌한 일을 종종 경험한다. 불쾌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위기상황’이라고 한다.

위기상황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건이다. 평소 경험했던 스트레스 강도를 초과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위기상황은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사람마다 위기상황 혹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느끼는 감정과 강도가 다르다. 같은 일이라도 더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덜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갑작스럽게 당한 위기상황에서 불안감이 분노로 튀어나오거나 우울감이 강화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원망과 심한 자책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함께 한 가족을 날카롭게 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위기상황

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유지(keep)’ 할 것과 ‘멈춰(Stop)’ 야 할 것이 있다.

유지할 것은 현재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항목은 긍정적 믿음과 마음가짐이다. 위기상황에서 절망을 생각하는 순간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힌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라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는다면 위기의 순간이 기회의 순간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았을 때 가족들이 붙잡을 게 몇 가지 있다. 우선 소중한 가족이 함

“가족 관계에서도 유지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분명해서 실천해야 한다.”

게 있다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른다. 가족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가족이 격려하면 믿음과 신뢰가 더 커진다. 위기상황에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큰 힘이 된다. 긍정적 믿음과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멈춰야 할 게 지켜야 할 것보다 훨씬 많다. 우선 비난을 멈춰야 한다. 가족 여행 중에 위기상황을 만나면 불쾌한 감정이 불쑥 올라와 서로를 비난하게 된다. 그러나 비난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시간만 더

들게 한다. 가족 중에서 누군가 소매치기를 당했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만 불만과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런데 간혹 소매치기를 당한 가족에게 비난을 쏟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지”와 같은 말이다. 위기상황에서는 잘못을 따지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면서 속히 그 위험지역에서 빠져나오도록 힘쓰는 게 필요하다. 비난은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든다.

가족은 많은 경험을 쌓아오면서 이어진 특별한 관계다. 좋은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선 비난을 멈춰야 한다.

비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불안과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부정적인 표현도 가능하면 멈춰야 한다. 마음에서 불안이 올라오고, 최악의 상황이 그려져도 표현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게 가족이 당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된다. 신기하게 불안은 표현되면 증폭되는 힘이 있다. 물론 긍정과 믿음도 그렇다. 긍정적인 말은 표현되면서 주변 사람에게 힘이 된다. 비난, 부정적인 표현, 책임 전가, 지나친 자기 확대 등을 위기상황에서 멈춰야 한다.

가족 여행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유지할 것과 멈춰야 할 것을 분명해서 실천해야 한다. 배우자가 불편해하는 말은 멈춰야 한다. 반대로 배우자가 기대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결혼 생활 가운데 유지해야 한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말, 부모의 강요하는 말, 자율성을 빼앗는 일방적인 명령 등은 멈추는 게 좋다. ‘멈춰’야 할 것과 ‘유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피할 수 없는 가족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냈으면 좋겠다(벧전 3:10).



황규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저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신앙교육여행'

신앙공동체에서 시작된 제주도 교회 역사

이세영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이호리 신앙공동체’와 ‘금성리 신앙공동체’를 들어본 적 있는가? 이름만 들어서는 궁금하기도 하고, 생소한 이름이라 어색할 수도 있다. 이호리 신앙공동체와 금성리 신앙공동체가 시간이 흘러 제주도 ‘성내교회’와 ‘금성교회’가 되었다. 제주도 교회의 시작을 알린 교회들이다. 9월 신앙교육여행지는 ‘제주도’다. 신앙공동체로 시작한 제주도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도의 신앙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제주도의 특별한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탄생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다.

제주도의 첫 교회가 어디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존재한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내용은 제주도에 신앙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생겨났다는 것이다. 제주선교 역사가 우리나라 첫 번째 신학교 졸업자인 이기풍 목사가 정식 파송을 받아 제주도에 도착한 시점부터가 아니다. 그 이전에 외지(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예수 믿고

고향 제주도로 돌아와 복음을 전한 이들의 열심으로 신앙공동체가 시작되었다. 신앙공동체 구성원들이 이기풍 목사를 만나 더 깊은 기독교의 진리로 인도되었고, 교회 일꾼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공동체, 더 나아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

제주도 신앙공동체 중 하나인 지금의 애월, 금성리 신앙공동체는 조봉호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언더우드가 설립한 예수교중앙학교(경신학교)에서 수학하고 기독교에 입문했다. 그는 부친의 사망으로 제주도로 귀향했다. 개신교 선교 활동은 물론이고, 근대화(교육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활동했다. 조봉호의 활동이 열매를 맺어 예닐곱 명의 성도를 얻었다. 그들 중 몇 사람이 자신의 집을 열어 함께 기도하고 자생적 신앙공동체 모습을 갖췄다(양석봉, 조봉호, 이덕련 등).

당시 제주도에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은 지역공동체로부터의 분리이자, 탄압과 괴롭힘의 이유였다. 일례로 제주도 출신 첫 번째 목사 이도종의 아버지 이덕련은 문중에서 쫓겨났다. 집으로 찾아온 일가의 장정들에게 명석말이를 당하는 수도도 당했다. 이덕련만의 일이 아니었다. 신앙공동체에 속한 이들이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붙들었다. 동네 대부분이 사돈과 팔촌으로 맺어진 친인척 관계에서 축출되는

단절의 과정을 겪었던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던 삶을 살펴보면 왜 제주도를 ‘말이 통하는 선교지’라고 불렀는지 알 수 있다.

금성리 신앙공동체의 첫 번째 기도처로 모였던 양석봉의 집터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 기도처가 세운 ‘금성교회’의 옛 예배당도 남아있다. 제주도의 첫 번째 자생적 신앙공동체의 기도처와 옛 예배당이 남아있다는 감격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기도처와 예배당 흔적을 보면 그 감격이 금방 무너지고 만다. 전혀 관리되지 않아서 2천 년 전 유럽의 고대 유물 흔적보다 못한 지경이기 때문이다. 초라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이 안타깝고 서글프게 느껴진다. 이 쓸쓸한 광경을 앞에 두고 이렇게 묵상하면 좋겠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시작한 신앙일지라도 나의 신앙이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자리날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렇지 않게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이와 같은 홍물로 변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의 나의 신앙은 계속 진행형인가? 아니면 추억의 한 장면인가?’

제주도의 첫 번째 신앙교육여행지를 금성교회 첫 기도처와 옛 예배당으로 잡은 이유는 찾지 않는 신앙의 문화유산(유적)이 얼마나 쓸쓸하게 사라지고 방치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다. 굳게 잡혀있음은 물론이요, 풀숲이 우거져 입구조차 알아볼 수 없다.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금성교회 첫 기도처와 예배당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그나마 지금은 작은 표지석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홍물로 남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

신앙교육여행으로 잘 보존된 곳을 찾아가는 것도 유익하고 좋지만, 크게 볼거리가 없는 곳에도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제주도에 여러 이유로 방문한 신앙인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자주 찾아가고 살펴본다면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고,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의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 금성교회의 옛 예배당.

두란노 신간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행한다!

믿음이 삶이 되는
야코보서를 배우다

《전신회행》

이해영 저 | 두란노 | 13,000원

을 하도록 돕는다.

《전신회행》은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행동과 삶으로 신앙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는 책이다. 행함 없는 믿음에서 벗어나 ‘전신회행’을 행하기를 원하는 성도, 성품과 영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성민교회 담임 이해영 목사가 《전신회행》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 〈야고보서〉 강해 설교를 엮었다. ‘전신회행’이란 온전히 믿고, 기쁨으로 행한다는 뜻이다. 이 책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개한다. ‘믿음이 온전해지는 길’, ‘이기는 기도 전략’, ‘인내의 영적 원리’ 등을 주제로 믿음의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세심하게 다룬다. 장마다 묵상 포인트를 넣어서 독자가 더욱 쉽게 이해하고, 깊은 묵상

오늘의 hymn

‘찬송가, 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

‘주가 주되심’
마커스 위십 곡

님이 주인 되시고, 주가 주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도전을 준다.

‘주가 주되심’ 앨범 표지에도 깊은 뜻이 있다. 앨범 표지에 있는 작품은 자이언 제이(Zion.J) 작가의 ‘동일한 동행’이다. 구름기둥을 품은 홍해이자 밤하늘을 나타낸다. 홍해를 걷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신다.

찬양 ‘주가 주되심’은 멜론, 지니, 벅스, 유튜브 등 모든 음악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다.

마커스 위십이 2023년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했다. 타이틀곡은 ‘주가 주되심’이다. 〈출애굽기〉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찬양이다.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되심을 나타내소서.”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던 모세의 고백에서 그의 삶과 신앙이 묻어난다. 모세처럼 하나



찬양 듣기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실천 ‘자원편’

종이를 대신할 수 있는 전자청구서, 손수건, 개인컵 등을 이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수입식품 줄이기, 절수기 사용하기 등을 실천하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실천 방안

- 1) 종이청구서를 전자청구서로 바꾸기
CO₂ 저감량(연간): 0.3kg
- 2) 종이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
CO₂ 저감량(연간): 10.5kg
- 3) 종이컵 대신 개인컵 사용
CO₂ 저감량(연간): 3.5kg
- 4)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사용
CO₂ 저감량(연간): 2.5kg
- 5) 수입식품 사용 10%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16.7kg
- 6) 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36.2kg
- 7) 유리병, 캔 등 분리배출하기
CO₂ 저감량(연간): 88kg
- 8) 절수기 사용 늘리기
CO₂ 저감량(연간): 18.9kg
- 9) 샤워 시간 줄이기
CO₂ 저감량(연간): 6.6kg

CGN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

9월 22일까지 콘텐츠 기획안 제출

CGN이 오는 9월 22일(금)까지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기독교 콘텐츠에 관심 있는 목회자나 신학생이 대상이다. 다양한 주제의 기독교 영상 콘텐츠 기획안을 작성해서 구글폼(포스터 QR코드 참고)으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한 작품 제출할 수 있다. 타 공모전에 출품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1편당 15분 내외로 에피소드 5개 이상 나오는 시리즈물로 제작이 가능해야 한다.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 대상(1명)에게는 2024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갤럭시 탭S9(wifi), 최우수상(1명)에게는 갤럭시 워치6, 우수상(1명)에게는 신세계 상품권 30만 원을 준다.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CGN 홈페이지(cgntv.net)에서 확인하면 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송영범 장로, 서울시 복지 명예시장 위촉 복지 분야 시정 관련 제안 및 자문 역할

송영범 장로가 서울시 복지 명예시장에 위촉됐다.

지난 8월 25일(금) ‘제6기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위촉식’이 서울시청에서 있었다. 서울시 명예시장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한다. 1차 후보자 80명을 추천받아 선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향력과 전문성을 갖춘 16명을 최종 선정한다. 분야별 1명을 명예시장으로 위촉한다. 서울시 복지 분야 명예시장은 복

지 현장의 요구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제안 및 자문 역할을 한다.

송영범 대표이사는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복지정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현장의 소리를 담아 실제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촘촘하게 집행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Love Sonata - 이야기 기·도·제·목

- 9월 3일(주일) 러브소나타 ‘미야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드러나기를
- 9월 4일(월) 말씀 선포하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영육 간에 강권하기를
- 9월 5일(화) 준비된 프로그램들이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진행되기를
- 9월 6일(수) 러브소나타 스태프들이 금식하면서 철저히 준비하기를
- 9월 7일(목) 미야기 일꾼들이 러브소나타 통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를
- 9월 8일(금) 러브소나타 봉사자들의 삶에 성령의 정결함이 넘치기를
- 9월 9일(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일본 차세대 크리스천들이 일어나기를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모집

경제 문제로 어려움 겪는 이웃 돕는 사역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채탈출119에서는 재정문제와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와 이웃들을 돕는 사역이다.

부채탈출119 재정상담사역자 양성 과정에서는 ‘기독교 정의와 부채탕감의 성경적 의미’, ‘부채에 대

한 이해’, ‘많은 채무에 대한 제도적 해결 방법’, ‘많은 채무에 대한 사회적 해결 방법’, ‘상담매뉴얼의 이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성경적 재정관리, 가계부채 상담, 재정상담 등으로 이웃을 섬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5550-3655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

서빙고 16일, 양재 9일, 서산 10월 14일

온누리 선교학교 ‘Why Mission?’이 시작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9월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두란노홀, 양재온누리교회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50분부터 두란노홀, 서산온누리교회 10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서빙고 9월 23일까지, 양재 9월 9일까지, 서산 10월 14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 서빙고와 양재 5만 원, 서산은 없다.

문의: 서빙고 (010-6247-3504), 양재(010-3652-5896), 서산 (010-2403-3854)

9월 화요성령집회 ‘Fresh Wind’

수많은 삶의 문제로 생기를 잃어 버렸다면 화요성령집회에서 회복할 수 있다. 9월 화요성령집회가 ‘Fresh Wind’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

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9월 5일 최성민 목사 ‘성령의 바람’ (요 3:1-15), 12일 이서진 목사 ‘영광의 바람’ (고후 4:7-18), 19일 최성민 목사 ‘소명의 바람’ (수 1:1-9), 26일 정한호 목사 ‘승리의 바람’ (렘 6:10-20)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일일 35기 결혼예비학교 모집

일일 35기 결혼예비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화) 오전 10시부터 두란노서원 홈페이지(duranno.com)에서 참가신청을 받는다. 선착순 마감한다. 회비는 26만 원.

일일 35기 결혼예비학교는 10월 9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예비부부,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문의: 02-2078-3263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 참가자 모집

부부 코칭 프로그램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이 9월 개강한다. ‘아름다운 동행 커플링’은 부부코치 훈련을 받은 한 가정 이 다른 세 가정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카카오톡 채널(온누리아름다운동행) 검색에서 하면 된다. 수강자는 코치 부부와 상시 매칭된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4215-5837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5일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는 9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182-9114

2024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9월 19일 화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4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받는다. 9월 19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천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어야 할 수 있다. 예비신랑과 신부는 등록 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포함).

결혼예배 예약을 하려면 예약금 1

백만 원(당일 이체 불가, 현금으로 준비)과 등록교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예비신랑, 신부가 타 교회 성도일 경우에는 소속 교회의 ‘등록교인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결혼예배 날짜를 미리 2~3개 선정해서 오는 게 좋다. 추천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주례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가능하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드린다. 문의: 02-570-7505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생 모집

9월 7일부터 매주 목 오전 10시 서빙고 비전홀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한다.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교육을 한다.

온누리 호스피스에서는 박성천 목사(온누리 호스피스 담당) 예배 인도, 최화숙 목사(은혜와사랑의교

회), 김옥겸 이사(한국호스피스협회), 김도봉 목사(한국호스피스협회 회장), 이충원 간사(한국호스피스와 화의과학회) 등이 강의한다.

온누리 호스피스 전문봉사자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아이스쿨(i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3412-7966

시니어아카데미 개강

9월 13일부터 서빙고 두란노홀, 양재 드림홀

시니어아카데미가 9월 개강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시니어 아카데미는 9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두란노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진행된다(점심제공). 대상은 70세 이상의 성도이다.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이나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회비 5만 원.

양재온누리교회 시니어아카데미는 9월 13일부터 11월 29일까지 드림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80명이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서빙고 (02-3215-3266), 양재 (02-570-7522)

■ 온누리교회에 드리는 편지



/ 류길현 목사(보은 어부동교회)

“모든 시간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2년 전, 제가 어부동교회에 부임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온누리교회 경기A 공동체와 함께 예배드리고 뜻깊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어부동교회는 충북 보은군 회남면 작은 시골마을에 있습니다. 회남면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문화가정입니다. 어부동교회에도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사역자가 따로 없고, 저와 선생님 한 명이 섬기고 있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감사하게도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기독 OTT ‘풍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주 아이들과 함께 시청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독 OTT ‘풍당’이 제가 하는 사역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시골 아이들에게 여름성경학교는 기독교 문화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상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름성경학교가 꼭 필요합니다.

온누리교회 과천의왕공동체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보은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를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청했습니다.

여름성경학교가 열린 날 양재온누리교회 유

아 1, 3부와 공동체 교사들이 대형버스로 이동하는 사진을 보고 큰 기쁨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기대하면서 아이들 15명을 승합차에 태우고 참가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하신 선생님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유호동 전도사님의 말씀과 찬양, 교사들의 신나는 율동, 이도열 전도사님의 간증, 즐거운 물놀이 등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시간이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어부동교회가 큰 혜택을 누린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첫날 잠자리에 들 시간에 우리 교회 한 아이의 두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의 눈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동생과 함께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이의 간증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기도와 마음, 물질로 섬겨주신 과천의왕공동체와 양재 온누리교회 유아 1, 3부 전도사님과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 호스피스 스쿨 수료 간증



/ 유수현 선교사(TIM 두란노국제선교회)

지혜와 겸손 그리고 인내

U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병원사역을 하다가 올해 초 안식년을 맞아 귀국했다. U국의 열악한 의료 환경과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환우들이 많았다. 내 안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다. 특히 아끼고 사랑했던 간호사 노디라가 갑자기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가 있었다. 병상에 누워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괴롭고 슬펐다. 그의 머리맡에 앉아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찬양을 부르고, 손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안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소천하는 모습을 봤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었다.

호스피스사역에 관심이 점점 깊어졌다. <온누리신문>에서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개강 소식을 봤다.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처럼 다가왔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강의를 들으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환우들의 처지에서

생각하게 됐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귀 기울이고, 이해해야 하고, 환우들의 몸과 마음의 고통을 완화해주고, 안정을 되찾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무엇보다 지혜와 겸손과 인내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과 사별한 이들이 슬픔을 극복하도록 곁에서 돕는 것도 호스피스의 중요한 역할을 알게 되었다.

소중한 이들을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은 분들이 계셨다. 그분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울 곳과 쉴 곳이 되어주기 위해서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에 함께하고 있었다. 그분들 덕분에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과정이 더욱 진지하고, 친밀한 것 같았다. 죽음의 문턱에서 한 생명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이 모든 과정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에서 배우고 느낀 것을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사용하기를 기도한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을 섬기고 본을 보여주신 스태프들 덕분에 호스피스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배웠다.

■ 홍산 은혜교회 아웃리치 간증



/ 이상준 집사(서초B공동체)

그 일에 쓰임 받아서
감사했다!

아웃리치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주가 일하 시네라’는 찬양이 떠오른다. 주님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즐거움을 누린 시간이었다. 지난 2월 아웃리치 기획을 할 때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기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했던 부여에 있는 한 교회가 생각났다. 출석 성도 30명 정도인 홍산 은혜교회를 아웃리치 장소로 정했다. 홍산 은혜교회는 교회건축자금 마련을 위해 멸치 1만 상자를 팔면서 전국을 다니던 목사님의 헌신으로 지은 교회다.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 자선장 나눔을 기획했다. 동네 주민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기도하면서 음악회도 기획했다.

지난 8월 12일, 오민 목사님의 기도로 아웃리치를 시작했다. 태풍 ‘카눈’으로 계획한 아웃리치가 틀어질까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태풍도 지나고,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했다. 첫 일정한 자선장을 시작했다. 물건을 사고팔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몇 시간 만에 성도들과 친해졌다. 자선장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했다. 자선장을 마치고 음악회가 열렸다. 처음으로 교회 문지방을 넘은 마을 노인회장을 비롯해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주민들도 함께했

다. 음악회는 오카리나 연주로 시작됐다. 소마 트리오 찬양 연주, 클래식, 동요 연주, SS콰이어까지 풍성한 연주가 이어졌다. 한 할머니는 좋은 음악회를 경험해서 좋았다고 하였고, 한 권사님은 음악회 내내 눈물을 머금고 계셨다. 홍산 은혜교회에서 반주를 하는 자매는 ‘우리도 성가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온누리교회 예배의 풍성함을 감사하지 않고, 당연시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았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다. <창세기> 8장에 홍수가 그치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었다. 목사님은 우리가 왜 방주 안에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세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민들을 하나님께 초대했다.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이 음악회를 사용하셨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을 받아서 감사했다.

함께 주일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가정 블레싱을 했다. 교육관 건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특별헌금도 봉헌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넉넉하게 끝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 남양주 중등부 전남 강진 아웃리치



/ 김예주 학생(남양주온누리교회 중등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

이런저런 이유로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온누리교회로 옮기면서 그렇게 친한 친구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남양주온누리교회 중등부 여름캠프에 가기가 꺼려졌다.

그런데 어느날 주일예배에서 요나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여름캠프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전도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성경에 나오는 요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여름캠프에 참가했다.

여름캠프를 가자마자 외로운 마음에 눈물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남양주온누리교회 중등부 선생님들께서 나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시고,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다.

여름캠프 첫날 저녁집회에서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 드렸던 수많은 예배 중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느껴졌다. 모든 찬양 가사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하고, 그 사실이 깨달아졌다. 이렇게 큰 은혜를 처음 느껴봤다. 나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이 터져 나

왔다. 무엇보다 큰 은혜는 하나님이 나의 외로움과 힘든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신 것이다.

여름캠프 둘째 날에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주민들에게 작은 선물과 함께 짧은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했다. 더운 날씨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예배에서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다.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나를 분에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쩌면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나를 더 많이 아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름캠프에서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다. 여름캠프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목사님과 선생님들, 도와주신 모든 분, 캠프에서 새롭게 알게 된 좋은 친구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장로칼럼

권사칼럼

길에게 길을 묻다

깊을 길 없는 은혜의 빛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강원도 원주시 문막에 있는 은행나무는 800년이 넘는 나이에 키가 32m, 둘레가 14m, 가지가 37m로 오랜 세월 균형있게 자라서 이 나무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뿌리가 깊고 가지가 튼튼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고, 비바람과 눈보리를 맞으며 사계절을 살아서 나이테 하나가 생긴다. 한여름에 지친 사람에게는 그늘막이 되어주고, 갑작스러운 소나기에는 우산이 되어주고, 세상살이가 고달픈 사람에게는 마음치유와 회복을 위해 쉼터가 되어 준다.

우리네 인생길은 이 나무보다 멀고 험할지 모른다. 희망과 절망,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으로 점철된 삶 속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걷기도 하고, 곧은 길을 오르기도 한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인생의 본바탕이 튼튼해야 무너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오랫동안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100세 시대를 사는 김형석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마음발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것이리라. 나는 멀어져 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이제껏 이론 것과 이루지 못한 것, 그 무엇인가를 찾아 반추하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묵묵히 씨앗을 뿌리는 사람으로 오롯이 살아가기로 했다.

영국 시인 키트는 “절반을 마치기 전에는 시작조차 하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마라톤에서는 42.195km 절반을 반환점(返還點)이라고

한다. 절반을 왔으니 시작은 확실히 되었고, 이제부터는 완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껏 숨 가쁘게 달려오지 못했다면 심기일전해서 더 열심히 뛰어가는 거다. 평범하게 반환점을 돌아갈 게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轉換點) 혹은 변환점(變換點) 삼아 더욱 열정적으로 달리는 거다.

나는 글을 쓰고 성찰하며 배우려는 마음과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는 용기, 꺾이지 않는 선한 마음으로 인생의 배낭을 다시 싸려고 한다. 더 넓고, 더 밝고, 더 빨리 걸어가갈 수 있는 큰 문이 아니라 콧구멍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오솔길처럼 좁다란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다른 사람이 흔들 건, 내가 흔들 건 끝없이 흔들거리면서 살아간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려는지 그 방향을 잡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님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한 발짝씩 내딛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를 사랑하여 택하였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믿음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은 자존감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고, 흡족한 마음이며, 긍정의 마음이다. 자기 계발의 기준을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집중해서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존감 높은 흡족한 삶을 사는 것이다.

가을 문턱에 들어서면서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하반기 개강을 맞이했다. 순장님을 비롯한 공동체 리더십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길을 오롯이 걸어가는 사람으로, 은혜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위에서 길에게 길을 물으며 동행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길자 권사
(서초C공동체)

나는 7년 전 대구에서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잘하면 6개월 정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했다. 서둘러 서울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는 의사의 권고로 2016년 4월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받기 시작했다. 동대문 삼육병원에서 유기능 항암 치료를 35회, 체력을 보강한 뒤에 서울대병원에서 37회의 고통스러운 항암치료를 받았다.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 있음을 감사했다.

치료를 위해 서울로 이사하고, 셋째 딸 가정에서 출석하는 온누리교회에 등록했다. 내 사정을 알게 된 서초C공동체 나눔2순 김정민 순장님과 순식구들이 한마음으로 항아리 기도와 사랑의 중보기도를 해줬다. 그렇게 나는 깊은 길 없는 은혜의 빛을 켜다.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 지인,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췌장암이 치유되어 추적 관찰 기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일 년 전쯤 친지에게서 뜻하지 않은 불쾌한 전화를 받고 불면증이 생겼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받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시니어 아카데미에 참석하게 되었다. 신앙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여러 권사님과 어울리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내 마음발에 금세 감사가 피어올랐다. 이정환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과 김진욱 강사님의 수화 찬양이 즐겁고 행복감을 줬다.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시니어 아카데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잠자기 전에 수화 찬양을 연습했다. 신기하게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불면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을 만큼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다. 몸과 마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고 상쾌했다.

“아! 내가 자기 전에 수화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단잠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려드렸다. 그 뒤로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습관이 생겼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이 주님을 기다려♪”

이제는 찬양을 한 소절만 부르고 누워서 잠을 청해도 잘 수 있게 됐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다. 하나님은 나의 작은 찬양, 기도, 몸짓 하나에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요즘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 지내고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크신 사랑을 베푸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값지 못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여생 동안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 살아갈 기쁨을 전해주시는 시니어 아카데미 권사님들, 늘 함께하고 싶은 시니어 아카데미 회원님들, 귀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모든 수고로 헌신하는 스태프들께 감사드린다. 내 인생을 스치고 지나간 모든 분께 깊은 길 없는 은혜의 빛을 켜음을 고백한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분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총,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기도한다.

신앙에세이

선교 현장에서 배우는 것



김태완 목사
(강남C공동체)

많은 아웃리치팀이 선교 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한 사역을 했다. 우리는 매번 질문하게 된다. 과연 선교 현장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떤 면에서 성장하게 될까?

첫째,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다.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결핍을 경험한다. 물리적인 환경, 문화적인 배경, 영적인 여건이 다른 선교지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목마름과 허전함, 답답함을 경험한다. 여러 가지 다른 환경이 주는 압박 가운데 그동안 내가 붙잡고 갈망했던 것들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느

끼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내 삶이 채워지기를 간구하게 된다. 특히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선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할 수 있다.

둘째, 배움의 시간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 현장에 가면 한국에서 사역하던 익숙한 방식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다. 이번에 다녀온 레바논 아웃리치 마지막 날 시리아 난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찬양집회를 하려고 계획했다. 팀원들이 미니버스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오기로 했다. 그런데 버스 한 대가 1시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았다. 인터넷이 열악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준비하는 리더십들의 마음이 초조하고 혼란스러워졌다. 선교사님은 오래전부터 교통편을 준비하셨지만, 결국 버스 1대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바뀐 환경에서는 최신

의 대안을 찾아서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오해와 갈등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된다. 과연 아웃리치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인지 생각하게 된다. 리더십으로서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배운다.

셋째, 선교를 경험하게 된다. 온누리교회의 비전은 선교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Acts29 비전이다. 그런데 가끔 들려오는 선교지의 기도제목과 소식이 멀게만 느껴진다. 그런데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들으면 완전히 달라진다. 그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서 온누리교회의 선교 정신을 체험하면서 선교지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선교는 다양한 장애물들을 뛰어넘는 사역이기 때문에 특정한 공식이나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 선교의 마음을 먼저 받아야 한다. 바로 그때 다양한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온다.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가진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사역을 하게 된다. 선교의 마음과 정신을 배우면 자녀들과 소통할 때,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웃들에게 삶을 나눌 때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9월부터 평신도 선교학교 ‘Why Mission?’이 개강한다.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배우는 기회다.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는 다양한 선교 현장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만날 수 있다. 이번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매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형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주일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B1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202 / 필리핀어 주일 14:00 B1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4F Manna hall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301 / 중국(청장년) 주일 11:00 4F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1F Startree Academy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B1 Dream Kids / 대학청년부 주일 12:30 305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 주일 14:00 304 / 아랍어 주일 12:00 2F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31-8048-944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미얀마어 주일 11:00 706호 / 러시아어 주일 14:00 703호 / 몽골어 주일 19:00 706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토요주일 14:00 703호 /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네팔어 주일 11:00 2센터 202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1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주일 13:30 4층 열방홀 / 몽골어 주일 11:00 2층 분당 / 파워웨이브 주일 11시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팡 11:00 2층 차세대예배실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주일 20:00 304호 / 다문화 차세대 주일 13:00 306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체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5-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재정팀(서빙고)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형태: 정규직 사원(주5일 근무)
자격: 2년제 이상, 기업회계 경력 5년 이상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 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선호 총무팀장(02-3215-3101)

호스피스 전문봉사교육
일시: 9월 7일~11월 30일 매주 목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접수: 아이스쿨
문의: 강경옥 팀장(010-3412-7966)

NGO더멋진세상 해외파견인력 모집
모집: 우간다PM 1명(신입/경력)
업무: 우간다KOICA 인도적지원사업 관리
접수: 9월 15일까지
문의: 문주영(070-4402-3023)
*자세한 사항은 betterworld.or.kr 참고

두란노서원 <생명의 삶> 편집 디자인 채용 공고
업무: <생명의 삶> 표지, 내지 편집 디자인 1명
형태: 정규직, 주5일 근무
경력: 편집 디자인 1년 이상(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등 디자인 툴 능통자)
기간: 9월 7일까지
접수: www.duranno.com

양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ú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렘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료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영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영어 놀이 프로그램 'Dream Seed' 교사 모집
모집: 소그룹,반주
교사 모임: 매주 토 오전 10시 30분 수업: 10월 14일~12월 2일
장소: 도곡교육관 B동 1층 꿈아이홀
문의: 박정옥 코치(010-4394-9309)
*교사 자녀가 드림씨드 등록 시 등록비 할인 혜택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부 9:00, 유치부 11:30 / 유년부 9:00, 유년부 11:30 / 초등부 9:00 / 초등부 11:30 / 소년부 9:00 / 소년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부활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 J대 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준비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6:0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파워웨이브(중고등부) 9:00 / 꿈팡(유초등부) 11:30 언더우드홀(2층), 예꿈(유아부, 유치부) 11:30 아펜젤러홀(2층)

평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2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분당 / 2부 11:25 분당 / 3부 14:05 분당

대학청년(주일) 16:00 분당

영어예배(주일) 14:10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13:30 301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분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분당

인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에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0: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분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분당

강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분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프라미스(분당), 프라미스U(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분당
수요저녁예배 19:40 사랑홀

새벽예배 오전 6:20 분당

국내 온누리교회		해외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8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문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릉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릉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영종 도육환 목사 (032) 752-7937 22377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49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생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 미서부 • 얼바인 박산송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영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8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NI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8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8 Main Ave, Lidcombe NSW 2141 Australia • 오를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욱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6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김철희 목사 81-6-6121-2015 (542-0083) 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tcho 1-4(1F&2F),ukyo-ku, Kyoto-si ■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택 목사 84-8-5412-2773 3SL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임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은수 강지영 권오향
김미정 김도일 김미정 김승겸
김진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환 김경배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태환 김경배 김요성 김용민
김흥주 노규석 노지형 노혜태
럼문홍 문영재 박근배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중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근구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성훈 신원철 스티브하
안사부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호
정현석 정형권 정희성 제지윤
조동욱 조병홍 조바름 조준목
조현수 최대환 최성구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재용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카와무라 요시키
주하늘 진선미 최정호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최정호 한화수 한충희
허원희 황종연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성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주영
김진숙 김중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 한해철 마주배
박씨마 백승현 비 켄 서영철
성우배늘 사카르 윌리엄 에릭 마
이름 스톨즈 이강혁 이민영
아이라프 이은일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임혜선 윤치연 이진량
존페이즈 차에이미 최정현 하효경
황연신

◆**전도사(파트)**

강규용 강하람 강현구 박시은
구길모 권대식 권여람 김가희
김기태 김디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영신
김예찬 김의연 김종균 김정부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세미
박예슬 박용아 박유진 박은혁
박의력 방예린 방명지 박성주
윤미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현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조현 윤종연 윤혜진 이난
이도열 이동준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시하라 노리코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정민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정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는 정상원 정성민
정은영 정영연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익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철준

김경선 김광동 김광철 김관근 김관식
김남열 김병중 김명철 김상식
김익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복
김성순 김수영 김수광 김수익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하 김장렬 김재욱
김종진 김용성 김중승 김재홍
김진국 김창호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환 노홍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국 문창호 문철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숙 박석남 박성진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성태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연 백홍기 상병선 서성철
서진봉 서창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익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정구 심준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대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환 유광영 유재진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익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용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광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철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정하
정강무 정대서 정도영 정승규
정병국 정보원 정순봉 정영열
정용호 정재택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과중 정희원 조창진
조희동 주승일 주현일 차승철
차준구 차내문 정영무 최도성
최득민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홍길 최희영
한백진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호희 한중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국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이해남 이한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삼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성길 장광열 장규환 장문서
장정식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관
정영기 정영택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오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한우 조진호
조정국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남영태 류수광 해트리스 박자인
최형수 최호필 하주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경 한홍희
한필규 한일성 한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춘진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영관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트리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성 우상근 이경희
최지석 주지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범 함지연 황재이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종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진희 김은혜 김경경
김정환 김지창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정현 오지훈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형재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이석일 이영복 이영민 이영준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원 이태환 이학일
임광순 임병수 임삼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성길 장광열 장규환 장문서
장정식 장정열 장영수 전한배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관
정영기 정영택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오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환
조성수 조성현 조한우 조진호
조정국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환
남영태 류수광 해트리스 박자인
최형수 최호필 하주현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경 한홍희
한필규 한일성 한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춘진 홍혜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영관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트리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성 우상근 이경희
최지석 주지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범 함지연 황재이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종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진희 김은혜 김경경
김정환 김지창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정현 오지훈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형재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김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경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경 김은식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성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중 남궁진
남민우 남예셀 노성희 노소라
노은경 문예지 문화정 박신희
박이영 박오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민 신진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유준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 준 이강석 이기원
이예리 이예나 이예은 이치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는 정진우 조민지
조영태 천은진 최숙희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최희정 홍서영
황지영

◆**명예장로**

김중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김영관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트리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성 우상근 이경희
최지석 주지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범 함지연 황재이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종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진희 김은혜 김경경
김정환 김지창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정현 오지훈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형재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강성현 김인혜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상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연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영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우희 정성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타치 하정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stine Dani
el Kim David Ko Enoch Ch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김하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종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욱 정길안
한덕중 홍규석

◆**명예장로**

김영관 김도균 김철진 김철희
이용만 이원로 이희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근 지성환
채수삼 최창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해트리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성 우상근 이경희
최지석 주지수 최태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범 함지연 황재이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종현 강혜영
김기택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진희 김은혜 김경경
김정환 김지창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정현 오지훈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형재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결혼

9월 9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을
박성배, 노정미(평그림선교회)의 아들
박은혁(온누리교회)
김승철, 박순분(영일교회 장로, 권사)의 딸
김지명(영일교회)

온누리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북)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중, 석식 봉사자 모집(개인, 단체 가능)
일시: 중식(11:00-14:00), 석식(16:30-18:30)
문의: 서민정 사회복지사(02-3474-6080)
※점심식사 제공, 정기봉사자 우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용산구립청파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및 정리
일시: 평일 10-13시(점심식사 제공)
문의: 문소연 사회복지사(070-4340-2542)

재정

모바일현금으로 더욱 간편하게
현금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현금 특징
- 이체 수수료 무료
- 모든 금융기관 이용 가능
*사용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의
모바일현금 캠페인을 참조하세요.



상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장소: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넛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02-570-7536, 010-4684-7536(문자전용),
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세무 상담: 둘째 주일만 가능(예약 필수)

소천

8/24(목) 과천의왕 김병규 성도 빙모상 고 이금자
8/24(목) 양재B 장은호 성도 모친상 고 최기연
8/25(금) 분당B 우동호 성도 모친상 고 강자혜
8/25(금) 일산 고준성 집사 모친상 고 이명자
8/27(주일) 관악금천 이찬수 성도 모친상 고 강금수
8/27(주일) 영등포구로 한혜숙 권사 시부상 고 이강진
8/28(월) 강남E 박상숙 성도 부친상 고 박진수
8/29(화) 성북 김진자 권사 시부상 고 장사철
8/29(화) 천왕 김영숙 권사 모친상 고 김남욱
8/29(화) 양재A 김옥진 권사 부친상 고 이기호
8/30(수) 용산 채영진 선교사 모친상, 이정석 선교사
빙모상 고 황은영
8/30(수) 서초C 선우현정 권사 부친상 고 선우경화
8/31(목) 서대문 이현우 집사 부친상, 최은주 권사 시부상
고 이용호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홍하영, 김다예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는
'풍당 X K-사역자 영상 제작 프로젝트'

K-기독교 콘텐츠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공모전

지원 자격

목회자 또는 신학생 (1인당 1작품)

주 제

#장르 무관 #풍당 유저 취향 저격 콘텐츠
#신앙 성장 콘텐츠 #풍당 맞춤형 콘텐츠

지원 방법

구글 폼으로 간단한 설문 조사 후 지원 가능
서류 자유 양식 (1-5장 이내)

내 용

러닝타임 15분 내외, 에피소드 5개 이상으로
구성 가능한 시리즈물

*필수 포함 내용: 기획의도, 편수, 구성, 일정 등 제작 실현 가능한 내용

일 정

1차 기획안 당선작 발표 - 10월 10일(화)
2차 PT 발표 및 최종 심사 - 별도 안내

상품 및 당선자 혜택

대상 (1명) 삼성 갤럭시 탭 S9(WIFI)

24년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로 제작

최우수상(1명) 갤럭시 워치 6

우수상(1명) 신세계 상품권 30만원

*자세한 내용은 CGN 웹사이트 및 CGN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2023. 8. 23. Wed

—

2023. 9. 22. Fri